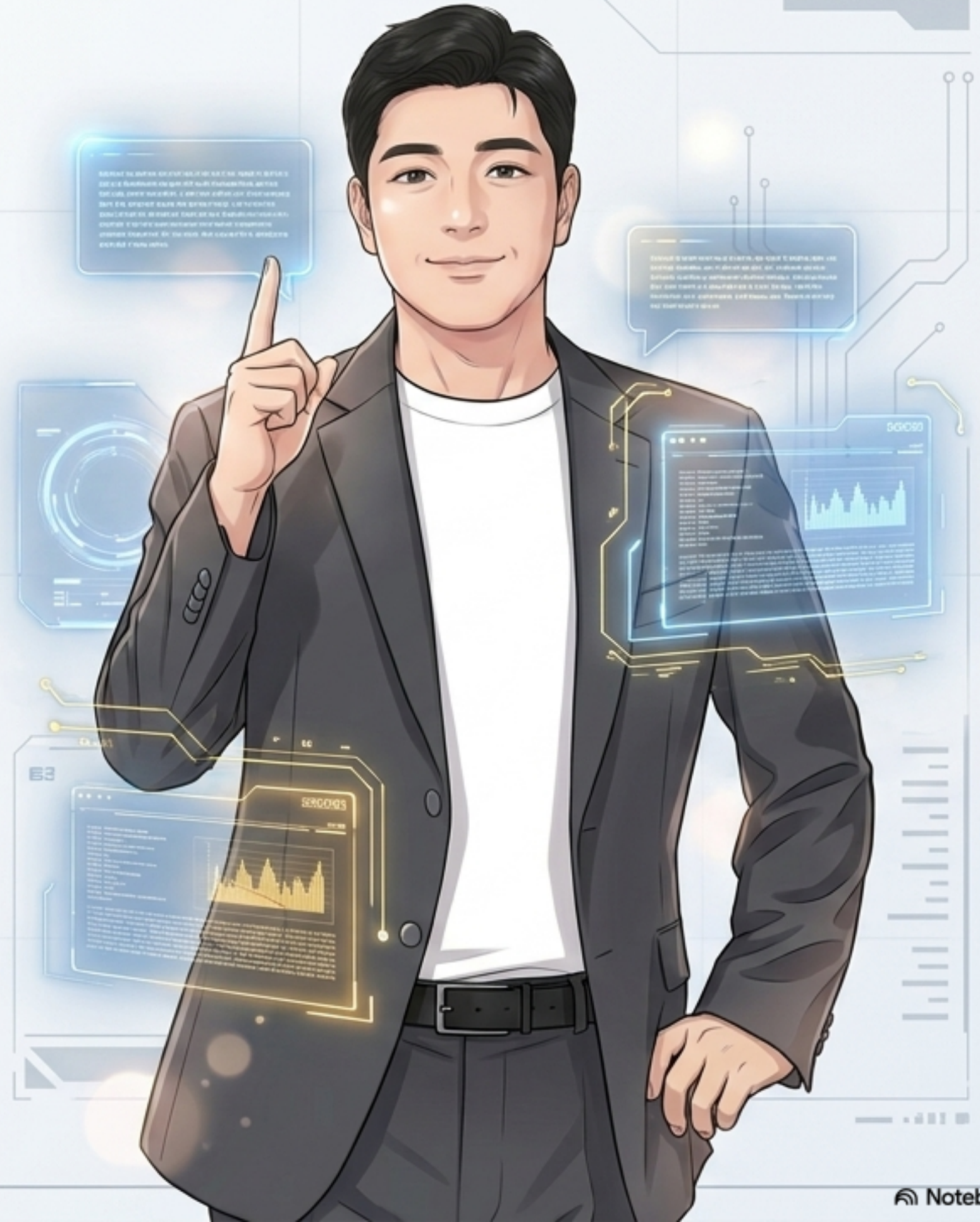


의료자문 합정, 당신의 보험금이 위험하다

뺏기지 않고 거부하는 3단계 절대 화법

Insider's Tactical Dossier | 진행: 팩트형





총 27,000건 이상 피해 발생

**하루 75명, 당신의 돈이
보험사의 이익으로.**



의료자문에 들어가는 순간, 3명 중 1명 이상은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거나 깎여서 받습니다.
이것은 1년 365일 매일 75명에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의료자문의 가면과 민낯: 마스크 vs. 실체 (MASK VS. TRUE FACE)



원래 목적:
객관적인 의학적 검증



현재의 실체:
고액 보험금 지급 회피 수단



보험사 직원이 '의료자문'을 꺼내는 순간,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보상과 담당자]

고객님,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의료 자문은 필수 절차입니다.
약관에 따라서 협조하지 않으시면
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숨겨진 진짜 의미

**말만 정중할 뿐, 사실상
'동의 안 하면 보험금 안 준다'는
일방적 통보와 압박입니다.**

방어 1단계: 근거 요구하기

[보상과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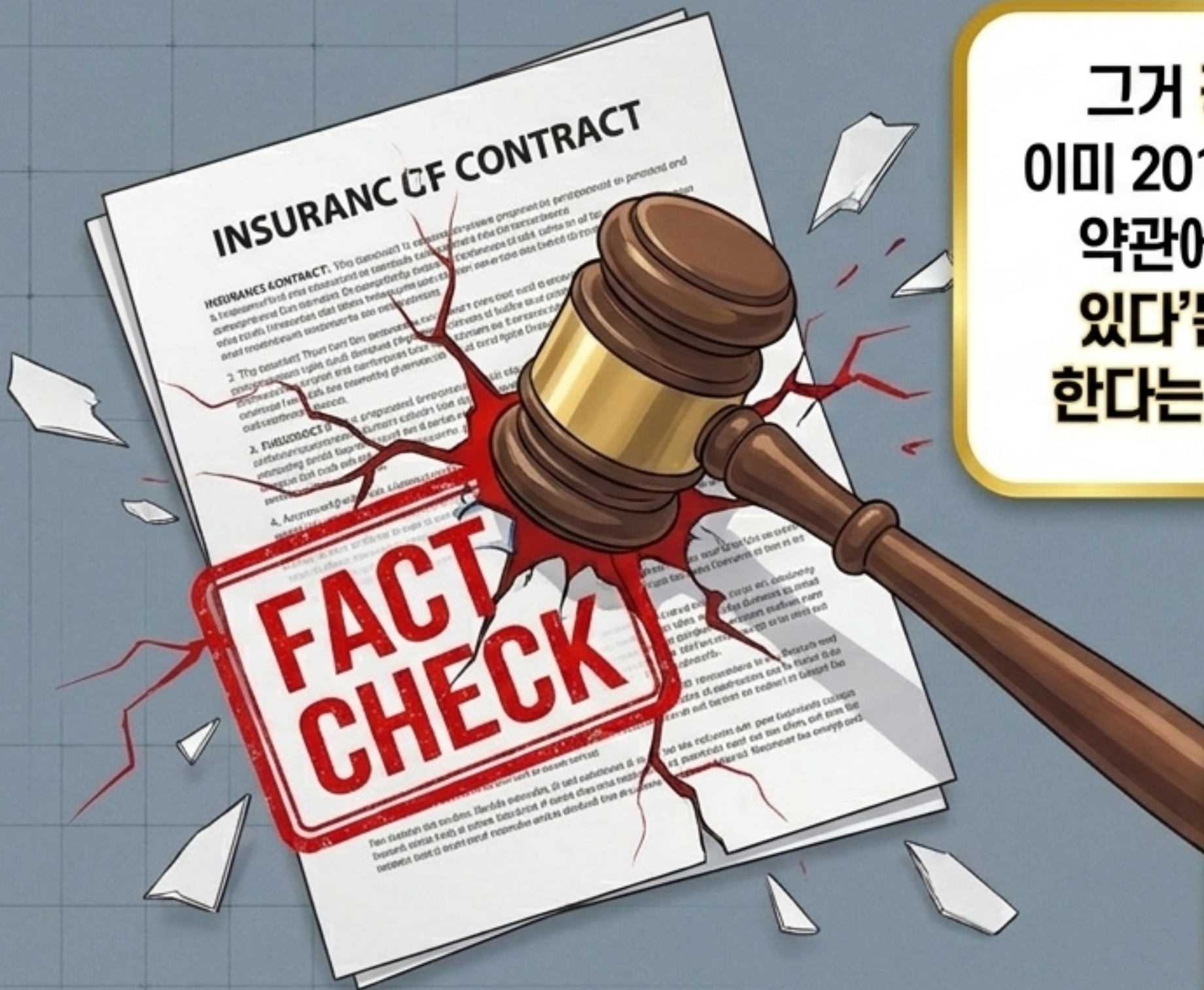
고객님,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의료 자문은 필수 절차입니다. 약관에 따라서 협조하지 않으시면 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의료자문은 담당 의사 소견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제출한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을 신뢰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뭔지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라면 당황하지 말고 이 멘트로 주도권을 가져오세요.

방어 2단계: 2018년 법원 판결로 반박



그거 강제조항 아니잖아요?
이미 2018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약관에 있는 내용은 '따를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법원의 판결은 반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약관을 무기로 삼는 상대방의 논리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의료기관 서면 동의 요청서

의료기관 서면 동의서는 업을 보도한 의료기관 열람과 적한 경락을 주역으로 드러태여 과거 치료 이력까지 절차사대도 의료기관 서면동의서는 강제아 의료자문 동의를 함께하고 강요하고 정창입니다.

의료기관 가격의 사략테이 따무 축한 열장을 위하고 음역 및 와밀과 열람에 동의해 달라고 하면서, 슬씩 의료자문 동의를 강요하는 분이 페턴 입니다.

의료기관 서면 동의의 책하내세 약관을 해점면 '이나 과적 치료 열무'열람서'를 위함에 저당한 동의를 강요하지 않아 의료하저 보고합니다.



담당자의 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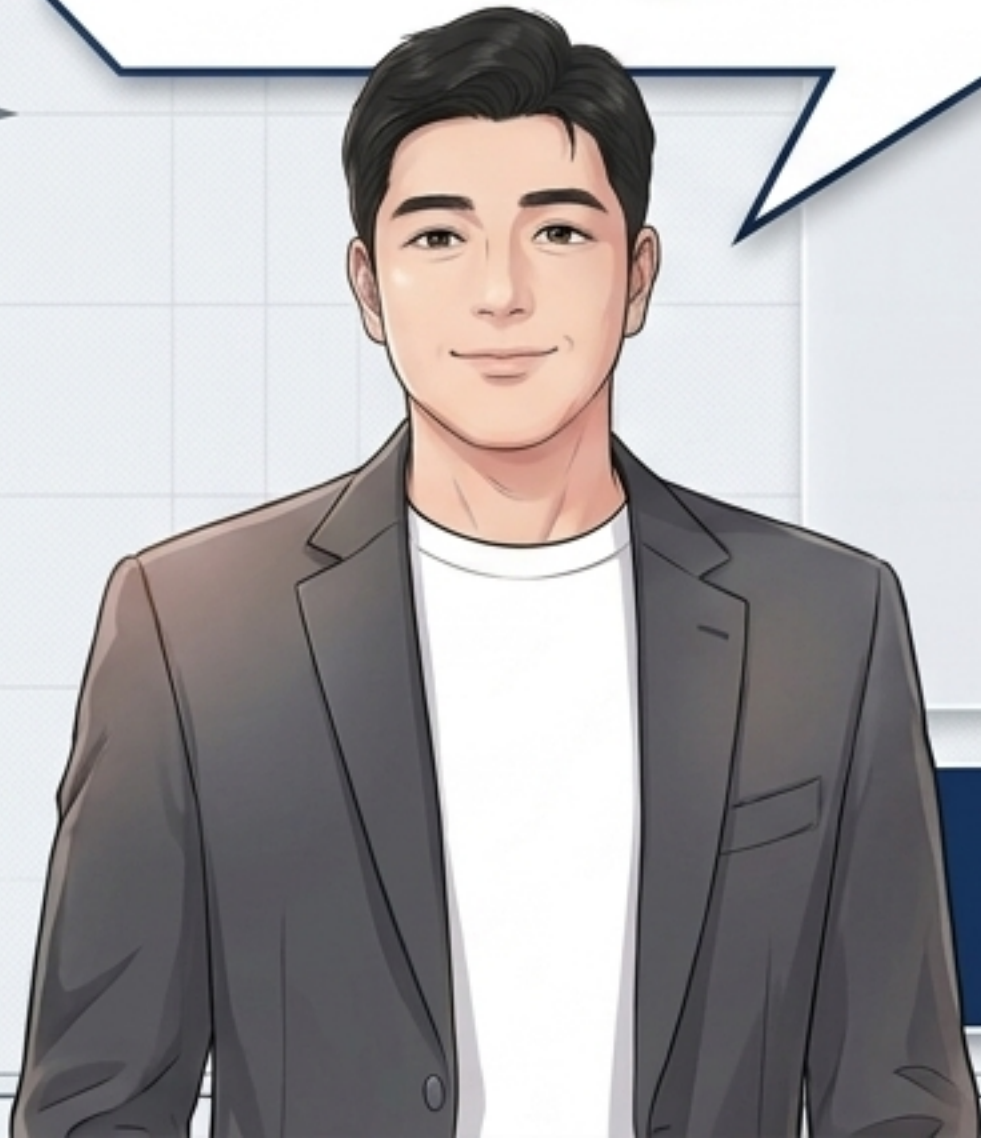
과거 치료 이력 열람에 동의해 달라고 하면서, 슬씩 의료자문 동의를 함께 강요하는 패턴입니다.

**치료 이력 열람과 절차를 무시한
의료자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약관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방어 3단계 [핵심]: '직인 찍힌 공문' 요구

제가 왜 의료자문에 동의해야 하는지,
그 법적/의학적 근거를
'회사 직인이 찍힌 공문' 형태로
보내주세요.



2024 문정우 임상
의료장의 공문

목적: 왜 의료자문에 동의해야 하는지 근거를 설명합니다.

연 도		영 경 모	
약용 및 징계처		상용 및 연계	
자영지역		학원/세연모	
부여 명칭	<input type="checkbox"/> 원인 전문 공판에 사안 <input type="checkbox"/> 의료자문에 응처음 태안 - 안상지, 제일 찍힌 공문		
와도판지			
과연기억			
망자명명			

※ 의료자문: 의료자문에 동의해야 하는 법적 자의적용 동의해야 합니다.
※ 외상자문계 외상자문과 상권을 더치사 근거야 억압보재: 권명을 용용의 회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2022년 1월 14일

회사자음권추력

구두 설명이나 일반 문자 메시지가 아닌,
회사의 공식 입장이 담긴 문서를 요구하여 상대방을 압박합니다.

방어 3단계 **[경고]** : 조직적 부당행위로 규정



카리스마

정당한 요구임에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시킨다면,
이는 담당자 **'개인'**과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의 화살을 **'대표이사'**에게까지 겨누는 가장 강력한 멘트입니다.

대표이사



법적 책임 확산

부서장 / 임원

법적 책임 확산

보상과 직원

분석: 책임의 확산

직장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책임의 근거’가 남는 것입니다.

직인이 찍힌 공문을 요구하고
대표이사를 언급하는 순간,
수백만 원 이하의 소액 건은
대부분 여기서 해결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시감정’**을 요구하라.



현실적으로 모든 의료자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끝까지 물려서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불리한 ‘의료자문’ 대신 정당한 권리인 **‘동시감정’**을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의료자문

동시감정

의사 신분	보험사가 관리하는 익명의 유명 의사	제3의 종합병원 이상 전문의
진찰 방식	환자 얼굴도 안 보고 서류만 검토	환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면 진찰 및 상담
결과 방향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가능성 높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대

이름도 모르는 유명 의사에게 당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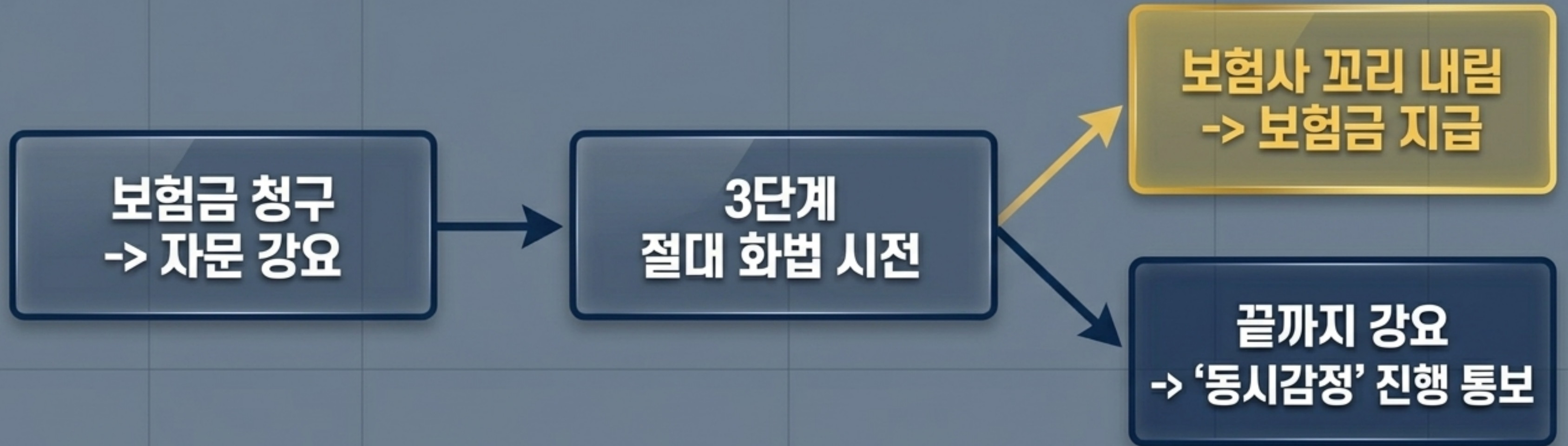
환자 안 본 의사 소견서? 법적 효력 '제로'

의료법 제17조

의료법 제17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작성된 소견서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도 없는 휴지조각에 당신의 소중한 보험금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 대응법을 저장해두고,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불공평한 제도가 바뀔 때까지 팩트형이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